



— 우리의 目標 —

- 1 在日僑胞의 救靈
- 2 祖国統一의 實現
- 3 韓·日兩國의 和解

第二十二回總會는 이러했다

總會長에 田永福(京都)牧師

在日大韓基督教會 제22회 총회는 10월11일부터 3일간 京都에배당에서 개최되었다.

첫날은 오전에 開會예배에 이어 聖예전을 거행하고 신회원환영으로 마치고 오후한시부터 본회의에 들어갔다.

총대는 총회산하의 牧師19명과 長老38명이 출석했다. 各局의 活動경과보고가 있은 후 신년도 임직원 개선을 했는때 총회장엔 평생을 헌신 전도에 봉사하고있는 전영복(경도교회) 목사를 피시게 되었다. 부회장과 各局長은 다음과 같다.

副會長 金 德 成 牧師
書 記 金 得 三 牧師
會 計 金 光 洙 長老
伝道局長 金 元 治 牧師
교육국장 배 기 환 牧師
청년국장 황 의 호 牧師

부녀국장 박 영 준 牧師
후생국장 김 재 술 長老
시취국장 우 윤 태 牧師
선교국장 정 인 수 牧師
치리국장 전 영 복 牧師

平凡한 献議案들

제1일 밤에는 각부서에서 위원 국원을 선정하는 시간을 요하기에 전체회의는 없었다.

제2일 오전에는 각 지방회에서 헌의안을 관계부서에 회파하는 작업들을 했는데 70주년을 목퍼로活動을 전개하려는 수년래의 호소에 비하여 헌의안에는 특이한 것이 없었다.

예배당 신축 개축 수리에 관한 경비보조 요청안이 8편이었고 전도소를 교회로 승격승인한것들 외에는 부인 여전교회 명칭을 女伝道會로 변경 승인한 정도였다.

具體的 活動案을 公開討議

— 各局은 七十週年에 目標 —

제2일 밤에는 새로 構成된 各局委員會에서 구상 계획한 활동방침을 공개토의에 부쳐 전 회회원들의 질문과 의견을 받는 새로운 制度의 총회회의법을 실행해 보았다.

이 공개토의에 들어가기전에 신임 총회장 전영복목사의 있었고 부회장의 선교七〇주년을 맞이하는 요지 다음과 같은 비존설면이있었다.

教勢는 現在의 倍加에 努力

千名居住地 禮拜處設置

伝道局은 (金元治) 現교세의 세례교인 753명 학습교인 215명 구도자 596명 주일학교생도 1050명(合 3615명) 외에 教會生活를 꾸준히하지 못하는회원 5000명이 있다고 추정되는때 선교七〇주년에는 전도소와 교회들 배가시켜 40개소에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교포 1000명이상 사는 곳에는 예배할곳이 한군데씩 있도록 전신도의 동원을 호한다 고 발표했다.

우선 현재의 대교회들은 전도소를 개설할 것이며 거기에 六〇주년(1968년)까지 신도들 자기교회 교세의 배

제2일 오후에는 세계교회 통합활동에 노력하는 獨逸人 말굴박사의 특별강연에서 激려를 받았다. 그는 성서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적역사하심과 교회의 선교활동"을 분석 설명하면서 오늘날의 교회들에 부과된 사명을 완수하도록 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선교七〇年(1978年)을 맞이하는 우리총회는 教勢를 現時點에서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따라서 질적인 신앙향상 강화에서 전도정신을 전체 교우들에게 자각하도록 활동해야겠다. 그 구체화를 위하여 各局의 活動은 各關係地方會部署의 協조를 받아가면서 다대한 성과를 견도록하기 바란다고했다.

가 되도록 하자는 협력요청과 결의를 공개했다.

厚生局(金在述)에서는 一般교포 신도들의 영주권문제에서 손실이 일지않도록 노력하려한다. 敎役者厚生年金에 관한 적절한 방법을 연구하여 실시하도록 권면하리 와한다.

국민보험 수속에 관한 문제도 유리한 방편들을 연구 하려고 한다. 생각지않은 재란에 처한 구제책 크리스마스 위문금품용도에 관한 연구도 임기응변적 편법을 세워百려고 한다.

宣教師 소식



하나님의 은혜중에서 평안하심을 삼가 비는 바입니다.

저의가정은 여러분의 기도와 열려하여주신 덕력으로 집을 얻고 이사하게 되었읍니다. 앞으로도 저이들을 위하여 기도 많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電話가 新設되었음을 알려 드리나이다.

電話番号 092 (68) 4538
福岡市大字名島黒崎町2384-1
宣教師 H.메비쓰(大比秀)

젊은이 많은 小倉教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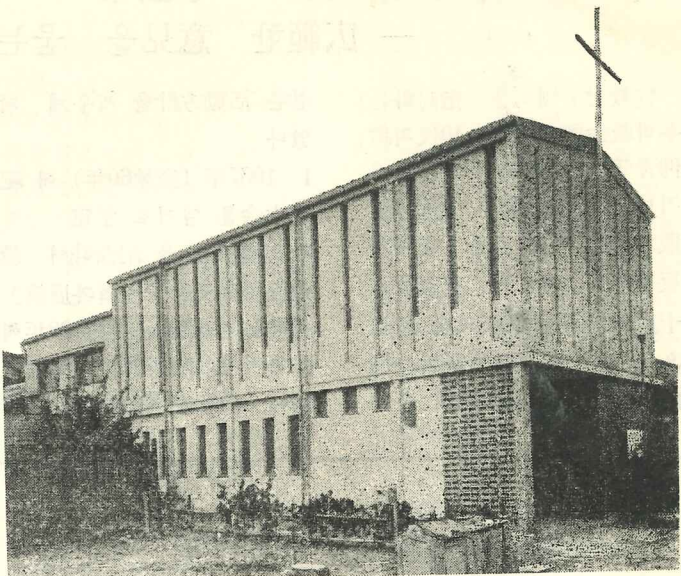
崔昌華牧師의 担任

小倉教會는 최근에 이르러 祖国放問者가 격증함을 따라 많은 사람들에 알려져 가고 있다. 解放되기까지는 八幡池鐵에 정용공으로 끌려온동포들의 안식처였다.

해방후 전반기는 韓延洙長老님의 수고도 있었으나 現在는 崔昌華牧師님의 活動으로 現代의 礼拝堂을 新築하고 每主日약 50명 정도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그 증 반수는 청년회원으로 (25명) 주일학

교와 교회사업에 봉사하고있다. 여전도회원은 23명으로등기되어 있다.

제직은 장로 한분과 남녀 집사 여섯분이 증심되어 연간 一千万円예산에 활동하고 있다. 과거 20년간에는 청년들과 사업가는 關西 關東 지방에 진출하는 일들이 많았으나 한일관계 정상화예의 한활기로 새로운 발전과 아울러 활기를 띠게教會로 기대된다.



良書紹介

池東植牧師外十一人執筆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再版〉

46版 208面 70원

포스트릭 著 金夏泰 博士譯
젊은 知性人에게
〈再版〉

46版 256面 150원

金正俊 博士譯
어거스틴懺悔錄
〈七版〉

46版 280面 150원

토마스 아 켄피스 著
본그리스도
〈五版〉

46版 288面 130원

金春培 牧師 著
殉教史話集
〈五版〉

46版 312面 150원

金鍾商 先生 著
이것이냐 저것이냐?
〈再版〉

46版 252面 150원

一九六五年度
韓國의 講壇

46版 262面 150원

柳東植 教授 著
韓國宗教와 基督教

46版 278面 250원

尹聖範 博士 著
基督教과 韓國思想

46版 276面 250원

蔡碩 近牧師 著
哲學과 宗教의 對話

46版 430面 300원

法團 大韓基督教會
對替 서울 一三九番

教育指導에 積極活動展開

目標있는 生活하도록

청년국(황의생)에서는 현재의 청년지도의 방관적이었던에서 자주성을 인정하면서 적절한 목표있는 지도의時機를 파악하여 점진적 지도강화를 해야겠다 전제한 후 앞으로 10년간에 ①교회 청년들이 확고한 신앙을 갖게 활동하겠다 ②교회청년들에게 한국민족 자각을 갖게 하겠다 ③日本人들과 友好的의 교제와 봉사를 하는 教会青年이 되도록 하려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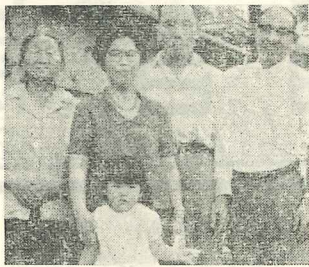
선교七〇주년을 맞이하는 행사로는 ①1967年初부터 일정한 텍스트를 만들어 매주간 성경연구를 계속하게 한다 ②선교六〇주년에는 청년선교대회를 개최한다 ③청년지도에 공로있는 사람을 표창한다 ④교회청년회 活動史와 解放20年史를 발행한다 ⑤《청년회의反省과展望》의 형상論文集을 發行하겠다고 公關討議에 불렀다

信徒의 質的向上에 努力
教育局(배기환)은 전도

하는 교회에 교육하는 것을 책임 사명으로 활동할것인비主日學校教師양성에 치중하는 한편 기독교가정교육을 강화하는 문서와 교안을作成하여 교포 신도들의 생활의 희망이 빛나게 하려한다고 하면서 건설적인 의견과 지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組織強化에 注力

婦女局(朴명준)에서는 선교七〇주년을 앞두고 전체교회회의 三分之二以上인 교회부녀들의 활동을 더욱 조직강화해서 성과를 높이려한다고 하면서 家庭、教会、社会에 基督者婦女들의 使命的인 活動을 強力히 展開할 계획을 추진하려다 不遠한 時機에 教会婦女活動을 專門的으로 추진할責任者를 두고 일하겠 다 오래전부터의 계획이있던 양로원도 그동안에 實現하도록 努力하겠다고 公關했다



주일을 지지나다 하루를 쉬고 広島로 향해떠났다 주일에 広島교회에서 설교하도록 가면 나의 책임은 족할것이었으나 모처럼 떠나게 되는 기회에 더 보람있는 여행을 하려는 생각으로 특급의 평인한 여행을 피하여 선봉기하나 들지도 않는 열차에 뛰어 올라탔다 전신이 땀투성이였다

점심때 지나 福山에서 손집사님 내외분을 방문했다 三次교회와 창설자인 손집사님은 八十가까운 年才인데 아직 건강하시고 一年가야 누구 하나 同信친구라고 찾아 주는 사람 없이 외로히지나시는 분을인지라 나의 돌연한 방문에 너무 반가우신듯 어쩔줄 모르시는것이였다 땀 식을 사이도없이 기도를 드리니 손집사 내외분도 눈물겨운 기도를 하시었다 믿는자의 사랑의 즐거움과 행

散在한 教友를 訪問하자

牧師의 休暇報告 (下)

복의 시간을 가졌었다 福山에는 확실한 수는 모르나 많은 우리 교포가 거주하고있으나 거이 조총련측의조작하에서 사회생활을 하고있었다 앞으로 전도에 귀를 기울일 사람이 적지 않다는말씀을 드릴때 이 성에도 나의 백성이 많다는 주의음성을 드문듯한 감을 느꼈다 『해야지 전도를……』

三次교회를 방문 말리시는 손집사님의 간청을 저녁에 三次교회에서 배를 보아야 한다는 핑계로 무리하게 작별하고 午後車로 三次로 향하였다 해방직후에 타고 다니던 완행열차 그대로의 기동차였다 내리쬐이는 뜨거운 석양햇빛은 사정도없었다 교부랑선로에 따라 오른쪽창을 직사한다 딱기는 했으나 땀은 옷을 적신다 불쾌지수는 극도에 달한것 같은 다섯시간의 피곤을 맞이는 코카콜라도 그때뿐 三次駅에 내려서자 긴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땀으로 침집사목을 찾아가니 친형님을 만난듯 반가웠다 목욕탕에서

땀을 씻고 저녁에 모이신 교우와 함께 삼일에배로 은혜를 나누었다 『너무 도라보지 않는 총회 라고 생각 되여이제는 버린교회가 된듯 단념 하였고 앞으로 받지도 않을 뿐더러 드리지도 않으려고 결심하고 있었으나 전목사가 찾아와 주니 역시 우리도 총회의 교회라 그동안 몇년 동안인가 밀린 부담금을 조사해서 알려 주시면 총회에 바치겠읍니다』 하신 교우들의 말씀에 대답할 말도 없이 감사에 넘쳤다 우리총회의 큰 할일의 하나는 지방에 흩어진 교회나 교우를 자주자주 찾아보아 주어야 한다는 느낌이 간절하였다 사도 바울이 이방교회를 세번이나 찾아순회의 길을 밟은것은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한다 三次라는 지명이 바울의 순회의 차례를 연상하게 하였다 앞으로 広島에 金信煥牧師를 피시게 되는데 대한 三次교회 의 意向과 計畫을 토의하고 여러 교우의 가정 가정의 사정을 알고 위하여 기도했다

青年活動의 沈滯를 糾明한다

— 広範한 意見을 묻는다 —

宣教七十周年을 指向하는 우리教会內에 30代 40代의信仰青年이 極少함을 痛感하며 지난 青年會運動에 欠陥과失敗가 있었다는 점을 솔직히反省한다 따라서 省宣教六十周年이 되는 1967年을 起點으로 새로운 青年運動의 指針과理念을 模索하면서 다음

같은 活動方針을 세우게 되었다
1 1967年(宣教60年)에 紀念大會를 열기로 予定
2 宣教60年을 記念하여 教会青年會史를『反省과展望』이라는 主題 밑에 戰後20年에 限하여 編集發行하기로 決定하다 內容은 青年會史 反省

과展望을 主題로 座談會 또는 懸賞論文募集
實行委員會組織
(長)洪永其 金元治 尹宗銀 金安弘 (青年側)代表委員 總務委員 青年會史編集委員으로 鄭壽千 黃義生 金得三 以上 9名으로하다
3 青年運動功勞者 表彰決定

4 全國教會青年會를 巡回하여 活動의沈滯原因 發展을阻止하는問題點을 糾明하고 같이 反省하며 活路發見을目標한다 實施日程은 西南八月 關西 中部 關東은 九月以後에 하기로 決定
5 『在日大韓基督敎會青年의 反省과 展望』을 主題로하는 懸賞論文을 募集한다
(1)資格 教會青年會會員에限함

(2)原稿 四百字用紙25~30枚 程度
(3) 마감(締切) 1967年 3月末
(4)原稿보낼住所 西宮市芦原 町32/1 西宮敎會 尹宗銀牧師 에게로 보낼것
(5)懸賞 當選論文金 10,000円 入選論文2編各 5,000円 敎會青年諸位는 卒先하여 応募하시기 바람

總會長인사말씀

今番에 敎弟가 重責을 맡게 되어 스스로의 無能을 生覺할때 두렵기 限없으나 慣例의인 人事를 比단 같이 해보았자 미리 주신 總會員 여러분에게 無責任한일 밖에되지 못할것 같아서 日常 棼은 抱負를 若干 드려 보렵니다 現時 敎會의體質改善이 가장 緊要한 課題인바 宗教改革의인 意味에서가 아니라 要컨대 보라도 더 受肉의인 本質에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흔히 흐르기 쉬운 敎會主義的인 親念의 形式的 因習의概念信仰에서 좀더 生活的인 土着化의 方向으로 實存主義的인 思考方式을 變換 實質的現實에 忠實있는 信仰態度로 敎會가 社會責任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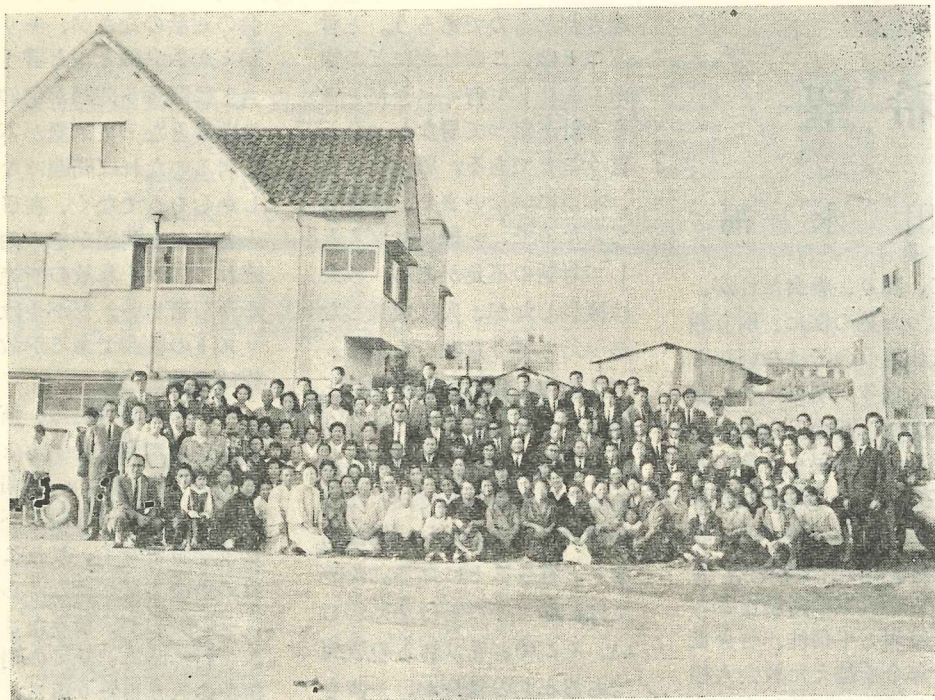
라는 雲上에서 地上에、靈에서 肉에、普遍的인면서도 民族的인、方言보다도 國語로 觀념보다 實踐、形式보다도 實質的으로、信條의에서告白的으로 受肉된 敎會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68年은 在日敎會宣敎六十週年인 비 금번總會는 六十週年과七十週年을 向하는 準備의 始作으로 過去 例年과 달리 事務的인것을 第二로 돌리고 事業計畫、事業完遂에 進진한 討議와 決心으로 總會를 마쳤읍니다 記念事業이라고 해서 王侯의 名譽의인 植木이나 記念館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찌까지나 福音化의 事業運動인비 具體的으로 敎會強化、伝道所敎會

昇格、開拓伝道로서 敎會新設、伝道所新設의 一大運動을 展開하자는것이이며 이에따라 青年 婦人이라는 有別의인 現實에서의 強硬한 敎化運動을 題材登用으로 展開하자는것입니다 그래서 60週年을 맞이해서는 記念祝賀大會를 舉行하고 70週年을 向하는 態勢를 가져어 70週年인 1978年에는 敎會數 伝道所數 敎人數를 現在의 倍數로 이루어 充實한 祝賀行事를 遂行코져 하는것인비 이에 對하여 우리의 姿勢는 앞으로 머리를 들어 강한 決意와 意慾으로 進進姿勢의 氣魄으로 前進하여야 하겠읍니다 빌3·13에 있는 바울의 姿勢를 본받아 『뵈』것은 잊어 버리고 포대를 向하여 쫓아가는 『進進姿勢』로 나아가

야 한다는것입니다 이에있어서는 過去와 같이 敎育의 보 다 『케류구마』的으로 敎役者가 平信徒를 養育 가르친다는 態勢에서 벗어나 敎役者와 信徒가 一線에서 福音의 軍旗를 높이 들고 굳게 잡아 진지하게 前進하자는 것입 니다 信徒運動이 앞으로의 中心運動이 되어야 합니다 職或伝道、生活伝道、伝道團 伝道、學生伝道、家庭伝道、學園伝道、社會團體伝道 게 다가 가장 큰 問題는 三八線 의福音上陸인 것입니다 이에 適材도 우리가 깊이 考慮하여 早急히 物色推進하여야하 는데 青年運動의 適材、婦人指導의 適材、大衆伝道의 適材、敎會建設의 適材、開拓 伝道의 適材를 推薦진출해야

합니다 이에 소위 모든 『謙遜의 結態度를 버리고 自進主任께 向한 応答의인 態度로 『내가 여기 있아오니 나를 보내소서』하는 使命者가 敎役者、信徒로서 나아가야 되겠읍니다 敎役者는 極端의말로 尊貴的인 觀념에서 完全히 脱皮하고 信徒는 會員的 會員의인 觀념에서 完全히 벗어나고 이 둘이 融合하여 하나로써 그리스도의 各々지 체의 하나로 自認自覺하여야 할때인줄 압니다 總會長이란 地位的인 判限에서 벗어나야한다는 自戒를 가지면서 抱負의 一端을 드리며 人事를 代身합니다

京 都 田 福 永



教会の革新

尹宗銀 西宮教会牧師



私たちが教会の使命を考える時に、先ず教会はなんであるかという教会理解からはじめねばならない。

教会とは、いうまでもなく、イエスキリストにあって、神より召し集められた群のことである。しかし神が何んのために、人を召し集めて神の民とされたのかはあまりしっていないようである。それを単的に云うならば、神はその民を通して世に働いていることを示すためである。つまり教会の自己栄化のためでなく、また自己目的のためでなく、世のため、世に神の働きを示すためである。それは、キリストがこの世に、こられたことと同じ目的である。

しかし今日私達は、教会と世との関係を往々にして誤解している場合が多い。教会は決して世と同じものではない。また無関係でもない。

ボンヘッファーが「教会は他のための存在である時はじめて教会である」といっている

が、教会は単純にこの世を否定したり、あるいは世を肯定するのでなく、この世におかれている教会の位置をはつきりと見定めることは信徒にとって大切なことである。キリスト者がこの世から選ばれて一つ所に「集められる」面と、反対にそこから、この世に「遣わされて行く」という面とが丁度呼吸のリズムのようである。そこで教会は新しくされて行く。

つまり神の言を聞くために「集められる」ことなくしては、この世に証するため「遣わされていく」ことは決してありえない。

ここで私たちは、キリスト者が「地の塩」であり「世の光」であることを再確認するのである。

しかし現代の状況を見ると今日社会的変化は急激である

西欧社会が過去四百年にわたって経験してきたいくつかの大きな変革を今日アジアでは短期間に経験するが、故に非常に混乱をきたしている。

このような社会をボンヘッファーは「成人した世界」といっている。

このような社会状況にあつて、教会は自己防禦のためにかきねをめぐらし、無事泰平に存在できようか。

ここで教会は自己の使命を再吟味するようになった。

先ず教会はその使徒性を再発見すべきである(ヨハネ17・18)。教会はこの使徒性において、「証し」「奉仕」および「交わり」の三つの側面から考えられる。

教会が開放的か閉鎖的かそのいづれかによって先きは決まるのである。

ここで私たちは一句の聖書の言葉を引用して終りたい。

「あなたがたは、ひとりの改宗者を作るために、海と陸とを巡り歩く。そして、つくったなら彼を自分より倍もひどい地獄の子にする」

(マタイ23・15)

これは今日教会が反省すべきことである。

の器に用いてはいけぬ。

(ロマ6・13) 我欲や利己心を自制して、神のよき奉仕の器として、神に捧げるべきである。

2、私達は自分の当然の権利だからとて無理に主張してもいけない。それを主張するのにも、時と場所と方法が適切でなければならない。放蕩息子(第1コリ10・31) 神への奉仕の爲めに私達の体はある。体は神の聖旨を実行する器であるから、自分勝手に振るまったり、我欲を充す爲めの悪

がらその財産を親兄弟の指導の下で用いるか、又はその財産を善良な方法で用いるか、自分の享楽でなく将来の生計の爲めに用いたら、彼は恐らくあのような悲惨な乞食にはなっていない筈である。

(ルカ15・11~16)

3、人間は誰でも本能をもっている。自制が禁欲と違うのは、禁欲はこの本能を抹殺することであるが、自制はこの本能的に押えて善い方に導いて用いることである。パ

ウロの高慢を押える爲めに、神は彼にとげを与えて高慢を抑制した。私達のこの本能が理性をこえて信仰的にも損失をもたらさない爲めに、私達は神の保護と助けを必要とするのである。私達は口にくつわをはめて、不必要な言葉を不用意に用いることなく、神をほめたたえ救われた証しを語るようにすべきである。自己にむち打って自制心を持ち、私達は主に仕えよう

韓国婦人の祈りに思う

O.C.C 山崎宗太郎 総主事

戦争はいたましいものだ。物理的力量をもって人間を圧殺し、理性も情感も押し流して悲情な現実を積み上げる。戦後すでに21年、だが、たしかの余蘊いまでも消えず、火を吐く戦場もある。

今日の世界不安の根源が、イデオロギーの相克にあることは見逃し得ない要因だが、イデオロギーにとらわれる政治の悲愴がいかにか人間疎外を現出するかは、今日の国際状況を見れば思い半ばにすぎることがある。東西ベルリン、北朝鮮と韓国、南北ベトナム、そして人民中国など、すべてその例に洩れない。

ことしの3月、韓国ソウルの永楽教会をたずね、その聖日礼拝に出席して、ここにも深い戦争の傷あとにいまも痛みを覚えている多くの人びとを見て、胸のしめつけられる思いがした。

永楽教会は、日曜に9,000人の大会衆をあつめ、3回に分けて礼拝を行なう世界屈指の大教会である。しかもこの教会は戦後の創設に成り、北朝鮮より38度線をこえて命からがら逃げた人々たちによって築かれたものという。そのおどろくべき大発展の蔭には、実に血と涙の犠牲のあることを知らされた。

礼拝はすすんで、信徒の長老が壇上で祈りをした。韓国語のため意味は分らなかったが、そのさ中にあちこちですり泣く声が耳をうった。ハテ、何事が起ったのかとソツと頭を上げて見廻すと、多くの婦人たちがハンカチを目にあててむせび泣いているので



ある。祈りが終るやいなや、隣席の通訳者に聞いた

「いま、なにを祈っていたのか？」彼は答えた「北朝鮮に残っている家族の平安を祈ったのです」ハツと胸をつかれて、熱いものがこみ上げてきた。そして思った『この婦人たちの涙に責任がある』

南北に分れた韓国に、第2次大戦の責任はない。日独伊3国の枢軸を盾に、東亜で戦ったのは日本である。日本敗戦の結果、朝鮮半島に38度線ができ、本来一つなるべき民族が両断された。そこにイデオロギーが侵入して骨肉相はむ悲愴が生れた。すなわち戦争のまき添えに由る。その罪韓国にはない

礼拝に出てみ前にひれ伏し、肉親の平安をただ神に祈るほかにすべのない彼らに、われらの果すべき責任はないかわれらには大きい反省が求められている

われらは、日夜の祈りの中にこのことを覚え、日本の犯してきた罪を悔い改めねばならぬ。「敵意というへだての中垣を取り除き」給う主に祈り、果すべき責任のあることを自覚せねばなるまい

聖書

自制

西成

(オ1コリント 9・24~27)

金元治牧

1、人間は食ふこと飲むことに節度のある生活をせねばならない。食べ過ぎ飲み過ぎは体を不健康にさせる。遅く起ることも同じ事である。これは自分を害するだけでなく、他人に迷惑をかける。運転手の酒の飲み過ぎによって、善良な歩行者が事故死することが多い。私達の体は自分のであつて、自分のでない。神

の聖霊の宿っている聖なる宮である。(第1コリ6・19) このような神より清められ救われた尊い体であるから、神の栄光を表わすような生活をするのが私達の義務でもある。(第1コリ10・31) 神への奉仕の爲めに私達の体はある。体は神の聖旨を実行する器であるから、自分勝手に振るまったり、我欲を充す爲めの悪

1967年度總會文書伝道委員会

委員長 崔 正 洙
委員 田永福、呉允台、金元治
丁仁寿、鄭寿千

福音新聞

発行人 丁 仁 寿
編集 (国語) 羅 曾 男
(日語) 鄭 寿 千



青年へのメッセージ

我らの教会の希望

在日大韓基督教 総会長 田 永 福

第22回定期総会に於て18年間勤続した総会書記の座を去り、総会長の席に就くことを余儀なくさせられた。自信があつてこれに服したのでは毛頭ない。弱く不適任であり全く自信がない故に、至上命令と信じさせられて服したのである。パウロの比ではないが「自分が使徒として当時の基督教界の第一人者となり強く発言し堂々と使徒職を主張し教会のリーダーシップを自分から掌握したのは自信だとか自負があつてのことではなくそれは全く正反対に、自分は罪人の首であり、使徒の中で一番小さい者であり、誇るならば自分の弱いこと、力ないことを誇るものであつて自分は全く土の器である。只この無価値な者から神の力が発揮され神の栄光が顕れること、その為、使徒として立上り苦しき死を覚悟して忠せいを尽した」と云うパウロの使命感の小さな後進者になりたいからである。総会長に推された以上仕事をしなければならぬ。只名前だけの総会長になつてしまえば、選んだ総会が大損害であり申訳けないことである。そこで、私は色々と考えさせられた。在日韓国教会、それはいと小さい存在である。然し小さい事が、無価値なことではない。いと小さいダイヤモンドは、ウィッチで捲き上げることの出来ない程大きな石よりも比較にならない程、高価である。我々の教会が、大小が問題でなく、ダイヤモンドになるか、無価値な巨石になるか、これが、最大の問題である。捨て置いて誰も持て行こうとしない大きな石の上に立つて総会長とドナつて見ても笑ひ者にしかならない。光り輝くダイヤをかざして、総会長の発言をする時、万人は、目を括いて、その声に耳を傾け在日六十万の視線は、そのダイヤに、驚きと愛着と希望と願いとを持って、向けられるに違いない。

我らの教会が、ダイヤになるか、その課題の中心は、教会青年である。小さな自分の幸福を庶民的な人生観として信仰をそこへ、引き摺り込もうとするような、青年の集りが、我らの教会青年であつたとするなら、幾ら沢山集つて、大きな石になつても、所詮、世から捨てられ、馬鹿に

され、笑ひものにしかならない巨石として雨風に晒されてしまうより外に存在意義はないのではないか、小さなナザレのイエスは、工匠から捨てられた（家を建てる為には不必要な小石だから）小石であつた。世の光であり、世の生命であつた。建築材ではなかつたが、宝であつた。建物には役立たなかつたが、家の宝となり、最大の財産となつた。キリストは歴史（人間の）そのものではなかつたが歴史の主となり歴史の支配者となり歴史の生命となり歴史の最大の財産となり歴史の審き主であり歴史の救主であつた。我らの教会に現時代の特色である「断絶」が、当然の様に入り込んで来てそれを時代的教会だと云う者が支配的である。折角、対話の最も具体性を持ち、可能性を持って来た。基督教会が、寧ろ世に先立って「断絶」を時代的と主張し、断絶を助成し、断絶こそ、自主性と誤解して得々としてゐる時、社会は「断絶から、孤立から」対話へ、カウンセリングへ、和へ、協力へ、建設へ、成長へ、向上へ、世界的水準へ、と文化は、経済は、政治までもが、伸び伸びと美しい、楽しい、煉然とした、目を見詰る程高度な、人間の共存を、形成して

行つて、独り、教会だけが、白く塗つた墓の様に、取り残されて仕舞うのではないかと、悲しくなる。明日への、我らの教会が「断絶」をすべて面から、いち早く、捨て去つて、素晴らしい「対話」の世界を、生み出し、神への、深い強い熱い対話を基盤として、聖書との真実な対話を宝とし、教役者と平信徒、若き世代と、年令を越えた教会人相互の、信仰の対話を教会の体質とし、和と、協力と、建設と、成長向上に向つて、前向きな姿勢を取り六十万僑胞の社会へと、強力な予言者的発言をなし、地道な証人となつて、温い、深い、対話に、出で立つ教会とならなければ、悔いを、後世に残すばかりでなく、明日の我らの教会の存在は、小さい光も、消え去り味を失つた塩として捨て去られ、亡び立つた昔のカルゴ地方の教会の激を踏むことになると思う。総会長として、只願うこと、ひとえに、教会青年にあることを、身を低うして、念願する次第である。復活の主が、我らと共に、この現実、に立つて居られる事に、感激と、喜びと、希望を持って 1968年の、宣教六十周年の記念すべき年を、迎えようではないか。教会青年諸賢の健康と、多幸を、謹んで祈つてアメン

十一月カレンダー

戦後22回目の私共在日大韓基督教の定期総会も終つた。

総会の各種の報告は機関を通してそれぞれなされるでしょうから、今次総会の眼にふれない内側に流れて居るものを、私の眼を通して感じ心に思うまま語つて報告にかえるまず思うことは、「対話」のなさである。戦後、新しい教団として創立して22年間を生きた成長して来て21才の青年総会、或る意味では、三名の牧師、数個の教会で創立した私共の教団が、21年を生きて40余ヶ所の教会、伝道所44名の牧師、伝道師にまで増加して来たこのことは先人の努力の大なるものが存在したのであり、喜ぶべきものがある。しかし、私共の教会に不足するものがあるとすれば、それは対話の精神である。

それが思想の貧困となつて、今次総会にまのあたりイヤと言うほど見せつけられた。又それが総会と言う場での貧困である故に問題も大きい。だが絶望する必要は少しもない。何故なら私共の総会がキリスト教会であるから。そのキリストの教会であると言う私共の希望でありなぐさめである事実、に立つて、何故「対話」が私共に存在しないのだろうか？新しい世代、古い世代と言う社会一般の問題が總てではなく、もっと別な処に問題の根がある。それは大きい意味では神学的な問題でもあるが、民族（在日韓国人として）し問題である。おそらく戦争直後の在日韓国人の總てが、そうであつた様に、日本に永住などとは考へもしないで在日大韓基督教の総会が組

織されたものであろう。と言うことは、この社会にどの様に土着化して行くべきだと言う方針が定つて居なかつたと言うことである。居ないまま、本当にいないまま、成長して来たので、一種のヒヅミとして対話の不足がある。教会は成長したが、人は成長しなかつたと言う意味でもある。

ここで、私共相互が信頼と勇気をとるもどす為にくつのかの問題を整理せねばならぬそのことを無視しては、「君が総会に残るのなれば俺は出る」と言うことになる。なつては、総てのことは無に等しい。そこで、キリストの教会である私共の総会が、一歩も二歩も後退して、在日韓国人の現在と将来の問題を共に苦しみ共に悩むと言う姿で対話をつづけて見たい。今日の総

会の対話のなさが、キリスト論とか教会論とかと言うキリストに関する問題が信仰告白の差異となつて対話が不足して居るのなれば問題はない。しかしそうでなく、在日韓国人としての問題がその内側に流れて居りそれ故の断絶であるから苦しい。だがやはりキリストの教会であるが故に希望はある。

その一つの方法は、新旧両世代が共に聖書を学ぶと言うことから始たい。一見別問題であるかの様に思得るが、決してそうでなく、これこそ最良の解決方法ではなからうか、この努力が、積みかさねられて行く時に、総ての問題の解決の入り口たり得る。そして祈らう。主キリストイエスの導き豊かな様にと。

(寿)

1967年度全青協活動方針

主 題

世に仕える教会

昨年一年間、私たちは「和解のしもべ」について学びそれをめざして多くの活動を行つてきた。八月の修養会では百余名の全国からの兄弟姉妹が集まつて、和解について学び、そのしもべになるために、日本の部落問題や在日韓国人のもつ問題や、私たちの教会の使命について学び合った

私達はこれらの歩みにもとづいて、9月から始まる一年間を更に一歩進まねばならない。9月2日全協終了後もたれた今年度第一回中央委員会では、このような立場から今年度の主題を「しもべの働き」副題（世に仕える教会）と決定した。これは八月の修養会直後から検討されていたもので、基本的にこの修養会の学習と決意を継続しつつ私達のキリスト者としての仕える生活を推し進めて行こうとするものである。私達はこの主題のもとで、大いに語り合い学び、多くの研究や奉仕をなし、その歩みの中で、私達に課せられた使命の重さを知り、真のしもべであられたイエスの十字架と復活に出合う事を希望するものである。

従来までの主題は、原則的に翌年の修養会のためのものであつたが、今年は、主題の「しもべの働き」は年間活動のスローガンとし、修養会が副題の「世に仕える教会」を中心として学ぶことになった。

今年の活動は基本的に全協の今日までの活動を更に進め

て行くものであろう。個々の活動は近日中に各部から具体的に示されるだろう。それらは昨年からはじめられた教会青年の実態調査活動や韓日間問題研究会の活動や社会問題研究会、その他多くの財政援助会の確立や出版物による意見の交換や研究発表などが継続されることになるだろう。これらはどれ一つ見ても、全教会、全青年の積極的な理解と協力なくしてはなしとげられないものである。その意味で今後ますます全教会員の主体的な参加が不可欠とならう。

しかし、これらの活動が常に参与するもの一人一人を豊かにし、個教会青年会を強め教会形成を進め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ぬだろう。そしてそれらは正に全ての活動を通して神への信仰を深めるものとなるべきだろう。

現在、教会全体から青年活動の重要性が再確認され、その非かさを指摘されている。このような時、私達教会青年は私自身の生活を通して、活動を通して私達の主張をなし奉仕をなして行かねばならない。そのような中で実のある対話が可能となり、私達の教会が日本の社会にあって真に世につかえるものとなり、そこに連なる我々が豊かにされることだろう。

その事のために全国28教会の青年会の会員そして教役者、信徒の祈りと協力が与えられん事を祈りたい。